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 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한양 도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를 봐주세요. (동영상 제시) 영상 속 장소가 바로 한양도성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이처럼 옛 성벽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양도성에 남겨진 우리 역사의 흔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은 실제 한양도성 성벽의 한 구간을 촬영한 것인데요. 이처럼 성돌의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성벽을 쌓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래층은 조선 건국 초 태조 때에 쌓은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극심한 추위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그대로 활용하여 축성 방법이 거칠었지요. 그 후 홍수 등으로 성벽이 많이 유실되었는데 세종 때에 이를 보수하였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교적 잘 다듬은 돌을 크기별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보이는 정사각형으로 다듬어진 돌들은 숙종 때에 쌓은 것입니다. 이때에는 전쟁 이후 무너진 성벽을 본격적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성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자성석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사진을 확대하여 제시)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성돌을 각자성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각자성석에는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을까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 후) 각자성석에는 도성의 축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 제시) 태조 때에는 이처럼 축성 구간을 구분하는 정도만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다 세종 때에 가면 이렇게 고을 이름도 밝히고 숙종 때에 이르러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책임자의 이름까지 밝히게 됩니다. 이를 보면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도성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양도성이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상당 부분 훼손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사진 제시) 오랜 복원 노력으로 옛 모습에 가깝게 정비되었지만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아직도 훼손된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선조들의 축성 기술과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한양도성이 온전한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료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③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④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2. 다음은 학생이 발표를 하기 위해 작성한 발표 계획서의 일부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발표 계획서		
발표 상황 분석		매체 활용 계획
청중 분석	주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것임.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옛 성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양도성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야지, ...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성돌의 모양이 다양한 이유를 궁금해할 것임.	거듭된 보수로 인해 성벽의 한 구간에 다양한 모양의 성돌이 나타남을 알려 주기 위해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시기별 성벽의 특징을 언급해야지, ...②
	각자성석에 대해서 사전에 들어 본 적이 없을 것임.	각자성석이 무엇인지 알려 주기 위해 사진 자료를 확대하여 성돌에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여 줘야지, ...③
제재 분석	각자성석에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음.	한양도성의 축성에 대한 기록이 담긴 각자성석의 사진 자료를 시대별로 차례차례 설명해야지, ...④
	한양도성 성벽 중 일부 훼손된 구간이 있음.	훼손된 성벽을 사진 자료로 제시하며 오늘날 한양도성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지, ...⑤

3.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두 학생의 메모이다. ‘학생 1’과 ‘학생 2’의 메모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1	학생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도성의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각자성석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어. ○ 다른 나라는 도시에 옛 성벽의 형태가 잘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 사례가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웠어. ○ 한양도성이 옛 모습에 가깝게 정비되었다고 했는데 현대에는 어떤 기술로 복원하였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번 한양도성에 갔을 때도 각자성석에 대한 지식을 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 조선 건국 초기 한양도성을 축성하는 과정 중에 겪었던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더 있었을까. ○ 태조, 세종, 숙종 때 외에 다른 시기의 축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축성 기술에 대해 알기 어려웠어.

-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군.
- ③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제시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들은 내용과 관련된 궁금한 점을 드러내고 있군.
- ⑤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제시된 자료를 언급하면서 기존 지식을 수정하고 있군.

[4~7] (가)는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토론 후 과제'에 따라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서책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서책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여러 권의 교과서에 담긴 정보를 하나의 디지털 기기에 넣어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서책 교과서보다 휴대가 간편하고, 교과서에 연동된 멀티미디어 자료나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손쉽게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 서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종이나 인쇄와 관련된 비용을 아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종이 생산을 위한 벌목으로 숲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아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 2: 서책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교체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말씀은 서책 교과서 사용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의미입니까? [A]

찬성 1: 네, 맞습니다.

반대 2: 독일과 미국의 환경 단체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교과서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는 제작부터 사용까지 평균 130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서책은 4kg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디지털 교과서가 서책 교과서보다 환경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1: 디지털 기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서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단순 비교하면 디지털 기기가 환경에 훨씬 유해해 보입니다. 그러나 서책과 달리 디지털 기기는 고정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기를 오래 사용할수록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B]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1: 저희는 서책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인터넷이나 전기 등 디지털 교과서 활용에 필요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학습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서책 교과서와 달리 콘텐츠 제작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디지털 교과서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는 서책에 비해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더구나 폐기 시 독성 화학 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에 더 유해합니다.

찬성 1: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로 교체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반대 1: 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책 교과서를 사용하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교육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정보처리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교과서보다 서책 교과서를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

토론 후 과제: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비평하는 글 쓰기

(나) 학생의 초고

요즘 세대들을 두고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일컫는다.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인쇄 매체보다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맞는 새로운 교육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서책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디지털 교과서는 여러 권의 교과서에 담긴 정보를 하나의 디지털 기기에 넣어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교과서에 연동된 자료를 활용한 심화 학습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다른 학습자와의 협력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관리할 수 있어 개별화 학습에 유리하다. 이러한 점에서 서책 교과서는 디지털 교과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고려했을 때, 서책 교과서보다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큰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서책 교과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정보처리 역량 및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우려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이 뒷받침되면 성공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4. (가)의 입론을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쟁점 1] 디지털 교과서는 편리한가?

- ▶ 찬성 1: 디지털 교과서가 휴대하기 쉽고, 연동된 멀티미디어 자료나 인터넷 자료를 활용해 심화 학습이 용이함을 밝히고 있다.
▶ 반대 1: 디지털 교과서 활용에 필요한 여건들을 제시하며 그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학습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쟁점 2] 디지털 교과서는 경제적인가?

- ▶ 찬성 1: 서책 교과서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디지털 교과서가 경제적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 반대 1: 디지털 교과서가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서책 교과서와 비교하며 강조하고 있다. ㉢

[쟁점 3] 디지털 교과서는 환경을 보호하는가?

- ▶ 찬성 1: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 나무를 베는 일이 줄어들어 환경 보호의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
▶ 반대 1: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원리를 설명하여 디지털 교과서가 환경에 유해함을 밝히고 있다. ㉤

5. [A] ~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반대 2는 진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가하고 있다.
- ② [B]의 반대 2는 상대측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수치의 명확성을 확인하고 있다.
- ③ [B]의 찬성 1은 상대측의 발언 내용이 공정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C]의 찬성 1은 다른 나라들의 현황을 예로 들며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⑤ [C]의 반대 1은 상대측의 의견에 일부 동조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6.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토론의 논제와 관련된 사회적 배경을 떠올리며 변화된 사회상을 제시해야겠어.
- ②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를 제시해야겠어.
- ③ 토론에서 언급된, 디지털 교과서로 키울 수 있는 정보처리 역량에 대한 구체적 예를 추가로 제시해야겠어.
- ④ 토론에서 언급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얻게 되는 교육적 효과를 확장하여 제시해야겠어.
- ⑤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해야겠어.

7. 다음은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을 작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기대 효과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 ① 철저히 준비하여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야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 ② 서책 교과서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인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 ③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 ④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의 길을 찾아가는 디지털 나침반이 될 것이다.
- ⑤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면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8 ~ 10] (가)는 작문 상황이고, (나)는 (가)에 따라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글의 목적: 아이스 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
- 글의 주제: 아이스 팩의 폐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나) 학생의 초고

최근 신선 식품을 집으로 배송받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식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아이스 팩의 생산량도 급증하고 있다. 아이스 팩은 일반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수지를 활용하여 만들어지는데, 한번 사용된 후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폐기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먼저 아이스 팩을 소각할 경우, 고흡수성 수지의 특성상 불완전 연소로 인해 그을음과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대기를 오염시킨다. 또한 땅에 매립하여 폐기하더라도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싱크대나 변기에 내용물을 버릴 경우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먹이 사슬을 거쳐 인간이 이를 다시 섭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이스 팩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가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아이스 팩의 전국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수거한 아이스 팩을 필요로 하는 곳에 다시 공급하여 재사용률을 높인다면 각종 환경 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은 제품 배송 시 사용하는 아이스 팩을 친환경 소재의 아이스 팩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친환경 아이스 팩은 주재료로 물, 전분, 소금 등을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아이스 팩은 수거함에 배출하여 재사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는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아이스 팩의 양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자원 순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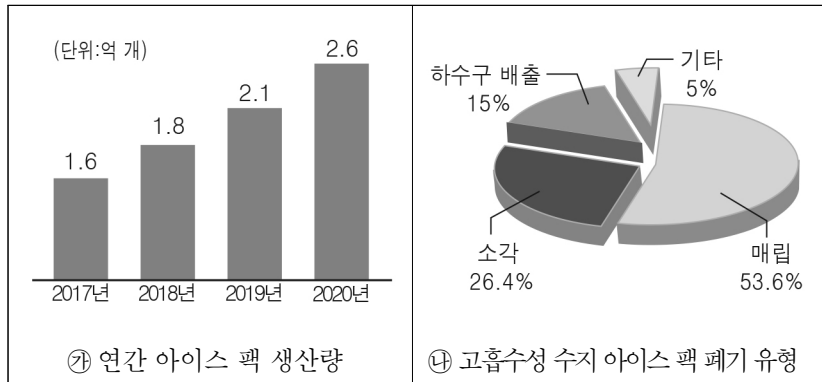
□ 우리 생활에 많은 편의를 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A] 아이스 팩 없이는 신선 식품이 생산되기 힘들다. 그러므로 □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가정의 협력이 필요하다.

8. (가)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활용된 것은?

- ① 글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환경 문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비교하여 제시해야겠어.
- ②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아이스 팩이 일으키는 환경 오염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해야겠어.
- ③ 글의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아이스 팩 수거 체계의 운영 현황을 제시해야겠어.
- ④ 예상 독자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친환경 아이스 팩의 구매 방법에 대하여 제시해야겠어.
- ⑤ 예상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겠어.

9. 다음은 학생이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1] 통계 자료



[자료 2] 신문 기사

아이스 팩에 사용되는 고흡수성 수지는,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이기 때문에 땅에 묻었을 때 자연 분해되는 데만 무려 500년 이상 걸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친환경 아이스 팩을 사용하는 기업도 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친환경 아이스 팩 사용은 친환경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자료 3] 환경 단체 인터뷰

“아이스 팩을 버릴 경우 현재 분리배출 규정에 따르면, 아이스 팩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다 쓴 아이스 팩을 버리지 않고 가정 내에서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토양 보수제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화분에 물을 충분히 준 뒤에 아이스 팩의 내용물을 올려 두면 고흡수성 수지가 수분의 증발을 막으면서 물을 공급해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아도 화분이 촉촉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 [자료 1-㉗]를 활용하여 최근 아이스 팩의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자료 2]를 활용하여 친환경 아이스 팩으로의 대체가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기업의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사용해야겠어.
- [자료 3]을 활용하여 아이스 팩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에서의 해결 방안으로 추가해야겠어.
- [자료 1-㉘]와 [자료 2]를 활용하여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 팩을 매립하여 폐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미세 플라스틱이 자연 분해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제시하며 대기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야겠어.
- [자료 1-㉘]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아이스 팩을 버리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분리수거 규정을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서의 해결 방안으로 추가해야겠어.

10. <보기>는 [A]를 고쳐 쓴 글이다. [A]를 고쳐 쓰기 위해 친구들이 조언한 내용 중 <보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아이스 팩이 우리 생활에 많은 편의를 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가정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 서술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생략된 주어를 밝혔으면 좋겠어.
-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삭제했으면 좋겠어.
-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제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추가했으면 좋겠어.
-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각 주체들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 문제 상황에 대한 가정과 예상되는 결과를 추가로 언급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했으면 좋겠어.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사어는 문장 구성에 부속적인 성분으로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말이다. 부사어는 수식 범위에 따라서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로 나눌 수 있다. 성분 부사어는 문장의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이때 문장의 특정한 성분이란 서술어나 관형어, 부사어 등을 일컫는다.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인데 이들 중 일부는 특정 표현과 호응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부사어 중에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접속 부사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장 부사어에 포함된다.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이지만 간혹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되기도 한다. ‘동생이 귀엽게 군다.’와 ‘민들레는 씹바귀와 비슷하다.’에서 ‘귀엽게’와 ‘씹바귀와’가 없으면 각각의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부사어는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형성된다. 첫 번째는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붙어 부사어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 부사어가 되는 것이다. 이때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같은 형태의 부사격 조사라고 해도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바람에 꽃이 지다.’에서 ‘에’는 ‘원인’을 의미하지만, ‘오후에 운동을 한다.’에서 ‘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이와 같은 예이다.

중세 국어의 부사격 조사는 현대 국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부사격 조사에서는 현대 국어와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애/에/예, 이/의’, ‘으로/으로’, ‘라와’, ‘이’ 등이 있다. 첫 번째로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 ‘애/에/예’는 결합한 체언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애’, 음성 모음이면 [A] ‘에’, ‘ㅣ’나 반모음 ‘ㅣ’이면 ‘예’가 쓰였는데, 특정 체언들 뒤에서는 ‘의/의’로 쓰이기도 했다. 두 번째로 ‘으로/으로’는 ‘출발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으로’가 ‘출발점’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세 번째로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격 조사인 ‘라와’는 현대 국어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격 조사인 ‘이’는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엄마: 민수야, ㉠ 아침에 ㉡ 친구와 싸웠다며?
 민수: 엄마, ㉢ 설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니야. ㉣ 결코 그렇지 않아. 민수가 무엇 ㉤ 때문에 그랬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
 민수: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친구를 너무 ㉦ 편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 ① ㉠과 ㉡은 같은 형태의 부사격 조사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군.
- ② ㉢과 ㉣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겠군.
- ③ ㉣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특정 표현과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군.
- ④ ㉤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군.
- ⑤ ㉦은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붙어 특정한 성분을 꾸며 주고 있군.

12.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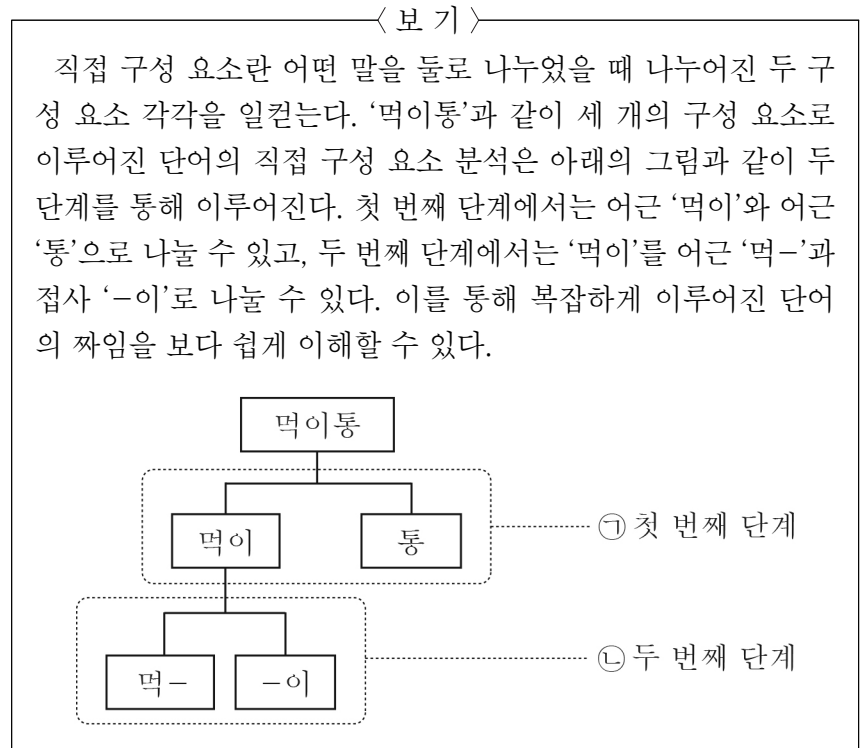
[탐구 주제]
 ○ 중세 국어의 부사격 조사에 대해 탐구해 보자.

[탐구 자료]

예	성분 분석	탐구 결과
내히 이리 <u>바르래</u> 가느니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	→ 바르+애 →	→ ㉠
더 <u>지브</u> 가려 하시니 (저 집에 가려 하시니)	→ 집+의 →	→ ㉡
貪欲엿 브리 이 <u>블라와</u> 더으니라 (탐욕의 불은 이 불보다 더한 것이다)	→ 블+라와 →	→ ㉢
거부브 <u>터리</u> 곧고 (거북의 털과 같고)	→ 털+이 →	→ ㉣
이에서 사던 <u>저그로</u> 오닛낫 2장 (여기에서 살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 적+으로 →	→ ㉤

- ① ㉠: '애'는 선행 체언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겠군.
- ② ㉡: '의'는 특정 체언 뒤에 붙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것이겠군.
- ③ ㉢: '라와'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부사격 조사가 비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겠군.
- ④ ㉣: '이'는 현대 국어와 달리 'ㅣ'모음 뒤에서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것이겠군.
- ⑤ ㉤: '으로'는 현대 국어에서의 의미와 달리 출발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겠군.

13. <보기>에 따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울음보'는 ㉠에서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고, ㉡에서 어근과 접사로 분석된다.
- ② '헛웃음'은 ㉠에서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고, ㉡에서 어근과 접사로 분석된다.
- ③ '손목뼈'는 ㉠에서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고, ㉡에서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된다.
- ④ '얼음길'은 ㉠에서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고, ㉡에서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된다.
- ⑤ '물놀이'는 ㉠에서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고, ㉡에서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된다.

14. <보기>의 ㉠ ~ ㉣을 수정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무슨 고민이 계신가요?
 ㉡ (형이 동생에게) 삼촌께서 할머니를 데리고 식당으로 가셨어.
 ㉢ (사원이 다른 사원에게) 부장님이 이제 회의실로 온다고 하셨어.
 ㉣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언니가 할아버지한테 안경을 갖다 주라고 했어요.
 ㉤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 ① ㉠: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도록 '아버지,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로 수정한다.
- ② ㉡: '삼촌'을 간접적으로 높이도록 '삼촌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식당으로 가셨어.'로 수정한다.
- ③ ㉢: '부장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도록 '부장님께서 이제 회의실로 오신다고 하셨어.'로 수정한다.
- ④ ㉣: '할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높이도록 '언니가 할아버지께 안경을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로 수정한다.
- ⑤ ㉤: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도록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쭙봐.'로 수정한다.

15.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에 대해 학생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음운의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으로 구분됩니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다음 예시에 나타난 음운의 변동에 대해 발표해 봅시다.

- ㉠ 꽃잎 → [꼰닙]
 ㉡ 맑지 → [막찌]
 ㉢ 막힘없다 → [막기몹따]

- ① ㉠과 ㉡은 첨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② ㉠과 ㉢은 탈락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③ ㉡과 ㉢은 축약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④ ㉠과 ㉡은 음운의 개수가 늘었습니다.
 ⑤ ㉡과 ㉢은 음운의 개수가 줄었습니다.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터치스크린 패널은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직접 접촉하면 그 위치를 파악하여 해당 위치에 설정된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 터치스크린 패널 중 정전용량방식의 패널은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물체를 스크린에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정전용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접촉된 위치를 파악한다. 터치스크린 패널에 사용되는 정전용량방식은 일반적으로 표면정전방식과 투영정전방식이 있다.

㉠ 표면정전방식은 패널의 네 모서리에 있는 각각의 감지회로가 동시에 정전용량의 변화를 감지하여 전도성 물체의 접촉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표면정전방식에서는 패널의 표면에 덮인 전도성 투명 필름이 전도성 물체의 접촉을 인식하는 센서 역할을 한다. 센서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물체의 전하량과 패널의 전하량의 차이에 의해 전압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전기장은 정전용량을 변화시킨다. 네 모서리에 있는 감지회로는 정전용량의 변화된 정도를 측정하여 물체가 접촉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표면정전방식은 투영정전방식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단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접촉된 위치를 대략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어 정확도가 낮고 한 번에 하나의 접촉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지점을 접촉했을 때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투영정전방식은 접촉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패널의 일정한 구역마다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 자기정전방식과 ㉢ 상호정전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기정전방식은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면 물체의 전하량과 패널의 전하량의 차이에 의해 전압이 변화하고, 이때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증가하는 정전용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원리가 표면정전방식과 유사하다. 하지만 자기정전방식은 표면정전방식과 달리 하나의 층에 여러 개의 행과 열의 형태로 배치된 각각의 센서들을 활용한다. 센서가 특정 지점의 접촉을 인식하면 센서의 각 행과 열의 끝에 배치된 감지회로가 접촉 지점에서 일어난 정전용량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과 열의 교차점인 접촉 위치를 정교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상호정전방식은 가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구동 라인과 세로축으로 배열된 센서인 감지 라인이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패널에 전도성 물체와의 접촉이 없을 때 구동 라인에서는 전압에 의해 전기장이 형성되며, 이 전기장은 모두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을 유지하여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 상호 정전용량을 형성한다. 하지만 패널에 전도성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던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흡수된다. 전기장이 물체에 흡수되면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 형성된 상호 정전용량이 감소하며 전기장의 크기 역시 줄어든다. 이때 접촉이 정확하게 일어날수록 해당 지점에 전기장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패널에는 접촉 전과는 다른 전기장의 흐름이 나타나 상호 정전용량이 변화하고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인 터치좌표쌍이 인식된다. 이때 터치좌표쌍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이 개별적으로 인식된 교차점이기에 하나의 패널에서는 여러 개의 터치좌표쌍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후 터치좌표쌍의 정보를 터치 컨트롤러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이미지로 처리하여 중앙처리장치(CPU)에 전달함으로써 해당 터치스크린 패널은 전도성 물체의 접촉 여부 및 접촉한 위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정전방식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을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측정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 두 지점을 접촉하는 멀티 터치가 가능하여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기기에 많이 활용되는 추세이다.

* 정전용량: 물체가 지니고 있는 전하의 용량. 여기서 전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을 의미함.

1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터치스크린 패널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직관적 조작이 가능하다.
 ② 자기정전방식은 접촉점에 해당하는 행과 열의 교차점을 터치 지점으로 인식한다.
 ③ 표면정전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에 전도성이 없는 투명 필름을 입혀야 한다.
 ④ 상호정전방식에서는 수집된 행과 열의 정보가 터치 컨트롤러에서 이미지로 처리된다.
 ⑤ 투영정전방식은 표면정전방식보다 구조가 복잡하지만 더욱 정교한 좌표 인식이 가능하다.

17.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모두 전도성 물체의 접촉에 따른 정전용량의 변화를 측정한다.
- ② ㉠~㉣은 모두 패널에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접촉 부분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 ③ ㉠과 달리 ㉣은 하나의 접촉점을 인식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감지회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 ④ ㉣과 달리 ㉢은 센서층이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 ⑤ ㉣과 달리 ㉣은 접촉 부분에서 증가하는 정전용량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18.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다음은 터치스크린 패널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이다. <자료 1>은 터치스크린 패널의 한 종류를 도식화한 것이고, <자료 2>는 <자료 1>의 ㉠~㉣ 지점에 형성된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 감지 라인 ■ 구동 라인

<자료 1>

* 단, P는 전도성 물체의 접촉이 없는 상태의 전기장 크기이다.

<자료 2>

- ① ㉠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는 ㉢에서 접촉된 물체가 흡수한 전기장의 크기보다 크겠군.
- ② 전기장의 크기로 보아 ㉢보다 ㉠에서 더 정확한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에서는 구동 라인에서 발생한 전기장의 크기와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는 전기장의 크기가 일치하겠군.
- ④ ㉣과 달리 ㉢에서는 감지 라인으로 들어가야 할 전기장의 일부가 접촉된 물체로 흘러들어 갔겠군.
- ⑤ ㉠과 ㉣에서는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 사이에서 형성된 상호 정전용량이 감소하겠군.

19. A에 대한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차점의 위치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중앙처리장치가 행과 열의 정보를 분할하기 때문이다.
- ③ 센서의 행과 열 끝에 감지회로가 배치되어있기 때문이다.
- ④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교차점이 개별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 ⑤ 하나의 패널에서 한 개의 터치좌표쌍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태양이 돌아온 기념으로
 집집마다
 카렌다아를 한 장씩 뜯는 시간이면
 검누른 소리 항구의 하늘을 빈틈없이 흘렀다

머언 해로를 이겨낸 기선(汽船)이
 항구와의 인연을 사수하려는 검은 기선이
 뒤를 이어 입항했었고
 상륙하는 얼굴들은
 바늘 끝으로 속 찢렸자
 솟아나올 한 방울 붉은 피도 없을 것 같은
 얼굴 얼굴 희머얼건 얼굴뿐

부두의 인부꾼들은
 흙을 씹고 자라난 듯 꺼머티티했고
 시금트레한 눈초리는
 푸른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 가운데서 나는 너무나 어린
 어린 노동자였고-

물 위를 도롬도롬 헤어 다니던 마음
 흩어졌다도 다시 작대기처럼 곳곳해지던 마음
 나는 날마다 바다의 꿈을 꾸었다
 나를 믿고져 했었다
 여러 해 지난 오늘 마음은 항구로 돌아간다
 부두로 돌아간다 그날의 나진*이어

- 이용악, 「항구」 -

*나진: 함경북도 북부 동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

(나)

옥수수대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허방으로 내딛는 저 곁뿌리처럼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목 울대까지 울컥울컥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옥수수밭 두둑의
 저 버드나무는, 또한
 제 흠집에서 뿌리를 내려 제 흠집에 박는다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

- 이정록, 「희망의 거처」 -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의문형 진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점층적 시상 전개를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직유적 표현으로 대상의 외양에 드러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가)는 화자의 과거 회상 속 항구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항구는 부두의 인부들과 어린 노동자인 화자가 고달픈 삶을 이어가는 공간이다. 한편으로는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곳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런 항구에서 다른 노동자들이 이상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것과 달리 화자는 방황하는 마음을 다잡아 삶의 의지를 다지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게 된다. 그리고 화자에게 이러한 과거 자신의 모습은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① ‘검은 기선’이 ‘입항’하고 ‘희머얼건 얼굴’이 ‘상륙하는’ 것은, 화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항구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② ‘푸른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인부꾼들’은, 이상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표현되어 고달픈 생활 현장으로서의 항구를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③ ‘날마다 바다의 꿈을 꾸’며 자신을 ‘믿고’자 했던 화자의 모습은, ‘시금트레한 눈초리’와 대비되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화자의 희망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④ ‘마음’이 ‘흩어졌다’가도 ‘작대기처럼 곳곳해’졌다는 것은, 방황하는 마음을 다잡으려 하다가도 바다로 가로막힌 공간에서 좌절하곤 했던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여러 해 지난 오늘’ ‘마음’이 ‘항구로 돌아간다’는 것은, 화자가 ‘그날의 나진’에서 자신이 가졌던 마음에 대해 느끼는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겠군.

22.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들이민다’는 ‘헛발일지라도’와 연결되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키우는 것이다’는 ‘맨발의 근성’과 연결되어 옥수숫대가 다른 존재와의 교감을 통해 성장하게 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박는다’는 ‘흙집’과 연결되어 버드나무가 고통을 인내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세운다’는 ‘스스로’와 연결되어 버드나무가 자신의 힘으로 상처를 극복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꺼내는 것이라고’는 ‘생이란’과 연결되어 자연의 모습으로부터 생에 대한 깨달음을 유추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23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의 이용을 둘러싸고 ㉠ 발생하는 국가 간의 상반된 이익을 절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규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해양을 둘러싸고 해당 협약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 당사국들은 우선 의무적으로 분쟁 해결에 관하여 신속히 의견을 ㉡ 교환해야 하고 교섭이나 조정 절차 등 국가 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평화적 분쟁 해결 수단을 거쳐야 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는 이유는 국제법의 특성상, 분쟁 해결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강제절차라고 한다.

강제절차란 분쟁 당사국들이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때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분쟁 내용 등을 고려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 가능한 기구에는 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설립된 분쟁 해결 기구들이 있다. 이 중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구성되고,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상설 기구로 재판관 임명이나 재판소 조직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만약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양국이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사건이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본안 소송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관할권이란 회부된 사건을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이후 본안 소송의 관할권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해당 재판소는 재판 과정을 거쳐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일정 시간이 ㉢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때 잠정조치란 긴급한 상황에서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의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내려지는 구속력 있는 임시 조치이다. 잠정조치는 효력이 임시적이므로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효력이 종료된다.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면 소송 절차가 개시되고, 그 이후 분쟁 당사국들은 언제든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잠정조치는 사건이 회부된 재판소에서 ㉣ 담당하지만, 본안 소송의 재판소와 잠정조치를 명령하는 재판소가 다른 경우도 있다. 본안 소송과 마찬가지로 잠정조치도 관할권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중재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었지만, 사안이 긴급하여 재판소 구성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조치를 담당할 수 있다. 이때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잠정조치가 요청된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 본안 소송의 관할권을 심리한 결과,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국제해양법재판소는 ㉥ 잠정조치의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잠정조치에 대한 관할권은 본안 소송

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이 회부된 중재재판소의 본안 소송의 관할권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고, 분쟁 해결이 긴급하여 잠정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의 중대한 피해를 ㉔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조치 재판을 통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심리: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것.

23.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잠정조치 재판에서 내려진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임시 조치이다.
- ② 분쟁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 ③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 원리는 각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된다.
- ④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이다.
- ⑤ 유엔해양법협약은 분쟁 당사국들에게 분쟁 해결에 대한 신속한 의견 교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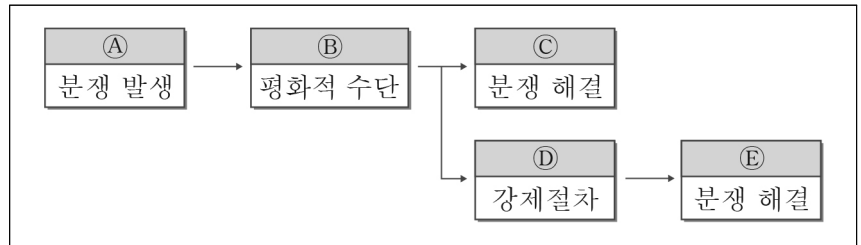
24. <보기>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모의재판’ 수업에 사용된 사례이다.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된 A국과 B국 간에 해양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 A국은 B국의 공장 건설로 인하여 자국의 인근 바다에 해양 오염 물질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B국과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B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추후 A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를, B국은 중재재판소를 통한 재판을 원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양국이 제기한 소송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A국은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을 염려하여 잠정조치를 바로 요청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재판소는 잠정조치를 명령하였다.

- ① A국이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B국과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A국이 요청한 결과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B국과의 본안 소송 재판은 종결되었겠군.
- ③ A국이 B국에게 교섭을 시도한 것은 분쟁 당사국들에게 평화적 해결 수단을 거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겠군.
- ④ A국과 B국은 동일한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두 국가 간 분쟁은 중재재판소를 통해 해결되었겠군.
- ⑤ A국이 재판에 사건이 회부된 후 바로 잠정조치를 요청한 것은 B국으로 인한 자국의 해양 오염을 시급히 막기 위함이겠군.

25. 다음은 밑글에 제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국가 간 다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D를 진행하는 모든 분쟁 해결 기구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
- ③ B를 통해 C로 가는 과정은 분쟁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 ④ D를 통해 E로 가는 과정은 국제적 분쟁 해결 기구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 ⑤ D를 통해 E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효력은 최종 판결 전까지만 유효하다.

26. ㉑, ㉒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의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㉒은 인정된다.
- ② ㉑에 대한 판단에 앞서 ㉒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 ③ ㉒이 확정되지 않으면 ㉑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 이후 ㉑이 확정된다.
- ⑤ 본안 소송의 개시 시점은 ㉒의 인정 시점과 일치한다.

27. 문맥상 ㉑ ~ ㉓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생겨나는
- ② ㉒: 주고받아야
- ③ ㉓: 짧아지기
- ④ ㉑: 말지만
- ⑤ ㉑: 막기

[28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소쉬르의 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뒤집는다. 소쉬르 이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소쉬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어의 기호 체계를 통해 설명하며,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소쉬르에 따르면 언어는 기호 체계로,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체계이다. 기호란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표지를 이르는데,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진다. 기표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외적 형식을 ㉠ 이르며, 기의는 말에 있어서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를 이른다. 예컨대 언어의 소리 측면을 지칭하는 ‘산[san]’이라는 기표에, 그 소리가 지칭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평지보다 높이 솟아 있는 땅의 부분’이라는 기의가 대응하는 것이다. 소쉬르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며, 단지 그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약속일 뿐이다. 이는 ‘평지보다 높이 솟아 있는 땅의 부분’이라는 기의가, 한국어에서는 ‘산[san]’, 중국어에서는 ‘山[shan]’, 영어에서는 ‘mountain[máuntən]’ 등의 다른 기표로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언어는 자의적인 성격을 지닐 뿐이며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소쉬르는 사람들이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랑그’와 ‘파롤’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랑그란 언어가 갖는 추상적인 체계이고, 파롤은 랑그에 바탕을 ㉡ 두고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이다. 소쉬르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발화를 하더라도 그 발화의 표현 방식이나 범위는 사실상 그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인 랑그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제약받는다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빨강 계통의 색을 ‘빨강다’, ‘시빨졌다’, ‘새빨강다’, ‘불긋불긋하다’ 등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한국어만큼 빨강 계통의 색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다. 따라서 소쉬르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빨강 계통의 색을 그들이 사용하는 랑그에 맞게 인식한다고 본다. 이는 결국 랑그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휘를 선택하고 그것을 언어 체계에 맞추어 발화하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쉬르는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발화자가 아닌 랑그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결국 소쉬르의 언어학은 언어가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나)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삶의 다양한 맥락에 ㉢ 따라 서로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의미사용이론’을 제시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일상 활동들의 맥락 속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한 타인의 언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가령 ‘빨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사전에 실려 있는 추상적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미술 시간에 눈앞에 있는 빨간 사과를 그려 보라는 교사의 말에 물감 중 필요한 빨간색을 ㉣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의미사용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를 게임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예컨대 땅따먹기와 같은 게임의 규칙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땅따먹기라는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런 게임의 규칙은 그것에 참가한 사람들이 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언어를 게임에 빗대어 설명한다는 것은 곧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람들의 삶과 영켜 있으면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을 언어의 모호성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크다’나 ‘작다’와 같은 표현들은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모호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이 없다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더욱이 사람들은 간혹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이 오히려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될 수도 있으며,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오히려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도 있다고 말한다.

전통적으로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일은, 수많은 종류의 나무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나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개념을 사용할 때 그것의 적용 사례들에 어떤 공통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결국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 맞물려 있어 삶의 양식이 다양한 만큼 언어 역시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8. (가)와 (나)의 서술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에 대한 특정한 이론을 관련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 ② 언어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언어에 대한 관점들이 통합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언어에 대한 이론들을 시대순으로 나열하여 공통적인 특성을 도출하고 있다.
- ⑤ 언어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며 각 이론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29. 랑그, 파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랑그는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수단이다.
- ② 파롤은 언어의 추상적 체계를 지칭한다.
- ③ 랑그는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이다.
- ④ 파롤의 표현 방식은 랑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 ⑤ 랑그는 파롤을 바탕으로 발화자가 주체임을 드러낸다.

30. 다음은 온라인 수업 게시판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 과제를 수행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제: 다음을 읽고 소쉬르나 비트겐슈타인 중 한 명의 입장에서 이를 해석하여 댓글을 작성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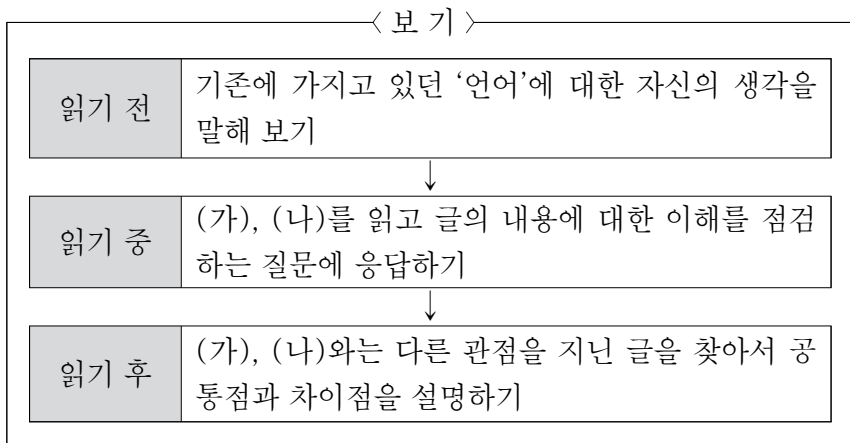
영어에서는 오징어[cuttle fish]와 문어[octopus]의 구분은 존재하지만 주꾸미와 낙지를 나타내는 단어는 없다. 물론 이들에 대한 생물학적인 학명은 존재하지만, 이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므로 사실상 그러한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영어권의 외국인들은 대부분 낙지와 문어를 잘 구분하지 못할뿐더러 맛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소쉬르의 입장에서 영어권의 외국인들이 낙지와 문어를 (㉠) 인식하는 것은 결국 언어가 현실 세계를 (㉡) 사례로 볼 수 있겠어.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오징어와 문어를 나타내는 단어는 영어에 있지만 주꾸미와 낙지를 구분하는 단어가 없는 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에 따라 언어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어.

- | | | | |
|---|------|-------|------------|
| | ㉠ | ㉡ | ㉢ |
| ① | 다르게 | 구성한다는 | 삶의 양식 |
| ② | 다르게 | 묘사한다는 | 높은 수준의 명확성 |
| ③ | 비슷하게 | 구성한다는 | 삶의 양식 |
| ④ | 비슷하게 | 구성한다는 | 높은 수준의 명확성 |
| ⑤ | 비슷하게 | 묘사한다는 | 삶의 양식 |

※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 과정이다. 31번과 32번 물음에 답하시오.



31. 다음은 '읽기 중' 단계에서 학생이 수행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	학생의 응답		
	예	아니요	
소쉬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 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나요?	✓	 ②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은 모두,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나요?		✓ ③
소쉬르는 비트겐슈타인과 달리, 언어가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나요?	✓	 ④
비트겐슈타인은 소쉬르와 달리, 언어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나요?		✓ ⑤

32. 다음은 '읽기 후' 단계에서 학생이 찾은 다른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주제 통합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말소리와 지시물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개념이 말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지시물은 개념을 통해 말소리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언어는 일정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 ㉡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언어의 의미는 곧 언어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이다.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존재하는 것이다.
- ㉢ 언어에서 사물의 이름은 임의적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다. 사물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닮고 서로 유사함을 나누어 가지며, 사물의 이름은 이런 자연의 법칙에 따라 지어진 것이다.

- ① 개념이 말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의 입장과 유사하게, 소쉬르는 언어가 기표와 기의의 대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② 언어는 일정한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 입장과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③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 입장과 달리, 소쉬르는 언어가 자의적인 성격을 지닐 뿐이며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④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존재한다는 ㉢의 입장과 유사하게,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먼저 있고 절대 불변의 법칙에 따라 세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⑤ 언어에서 사물의 이름은 임의적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의 입장과 달리,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33.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그녀는 약속 장소에 이르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 ② ㉡: 우리 회사는 세계 곳곳에 많은 지점을 두고 있다.
- ③ ㉢: 예전에 어머니를 따라 시장 구경을 갔던 기억이 났다.
- ④ ㉣: 탁자 위에 쌓인 여러 책들 중에 한 권을 골라 주었다.
- ⑤ ㉣: 그의 입술은 굳게 맞물려 떨어질 줄을 몰랐다.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차설, 이때 유씨 해평읍을 떠나 절강을 향해 가며 말하기를
 “성인의 말씀에 참으로 흥진비래는 사람의 일상사라 하였거니와 팔자 기박(奇薄)하여 낭군을 천 리 밖에 두고 불측한 일을 당하여 목숨을 겨우 부지하였으되 슬프다, 한림은 그 어디에 가 찾아지고 내 이러한 줄 모르는고.”
 하며, 애연(哀然)히 울면서 가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그러저럭 절도에 다다르니 청산이 먼저 들어가 정양옥께 유씨 오심을 전하니 양옥이 놀라 칭찬하되
 “여자의 몸으로 이곳 만 리 길을 헤매고 이르렀으니 남자라도 어려웠으리라.”
 하고는, 십 리 밖에 나와 기다렸다. 이윽고 문득 백교자 한 행차 들어오며 한림 부르며 슬피 우는 청량한 소리는 사람 애간장을 끊는 듯하더라. 양옥이 하인에게 전갈하되
 “먼 길에 평안히 왔습니까?”
 하거늘 유씨 답하기를
 “그간 중에도 위문하러 나오시다니 실로 미안하여이다. 한 많은 말씀은 종후에 논하외다.”
 하고, 통곡하니 길 가던 사람들 보고 들으며 뉘 아니 눈물을 흘리리. 청초히 말하기를
 “유씨 정절은 만고에 없을 것이라.”
 하더라.
 유씨 관 앞에 이르자
 [A] “유씨 왔나이다. 어찌 한 말씀도 없으신고. 이제 가시면 백발 노친과 기댈 곳 없는 첩은 어찌하라고 그리 무정하게 누웠는고. 첩이 삼천 리 길을 마다 앓고 지척이라 달려 왔건만 반기지도 아니 하시나이까?”
 하며, 통곡하다 기절하거늘 양옥이 어쩔 줄 몰라 연연히 분주 하더니 이윽고 인사를 차리고는 양옥은 밖에서 울고 유씨는 안에서 통곡하니 그 구차한 정경은 차마 보지 못할 것 같았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남편 춘매가 혼백으로 나타나 유씨에게 후생을 기약하고 떠나간다.

유씨 도리어 망극하여 통곡하며
 “신체라면 붙들거니와 혼백으로 가니 무엇으로 붙들리오. 도리어 아니 만남만 같지 못하도다.”
 하고 머리를 풀고 관을 붙들고 울며 말하기를
 “한림은 할 말 듣게만 하고 저는 한 말도 못하여 적막케 하고 가십니까?”
 하며, 시신을 붙들고 그만 쓰러져 죽거늘, 정생과 하인이 망극하여 아무리 구하되 회생할 기미가 없고 더 이상 막무가내라.
 “초상(初喪)의 예를 차려라.”
 하고, 주선하니 이때 유씨 혼백이 한림을 붙들고 구천을 급히 따라오거늘 한림이 돌아보니 유씨 오거늘 급히 위로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오는가. 바빠 가옵소서.”
 하니 유씨 말하기를
 “내 어찌 낭군을 버리고 혼자 어디로 가며 남은 명을 보존하오리까. 낭군과 한가지로 구천에 있겠습니다.”
 하고 따라오거늘 한림이 할 수 없어 함께 들어가는데 염라왕이 말하기를
 “춘매는 인간에게 가서 시한을 어기었다.”

하고, 사신을 명하여
 “급히 잡아들이라.”
 한데, 사신이 영을 받고 춘매를 만나 염왕의 분부를 전하여 왈
 “그대를 잡아오라 하여 왔나니라.”
 하니, 춘매가
 “내 돌아오는 길에 아내의 혼백을 만나 다시 돌아가라 만류하다가 시한을 어기어 하는 수 없이 데리고 들어가노라.”
 하고, 들어가니 사자가 염왕에게 사연을 고하였는데 염라대왕이 즉시 춘매와 유씨를 불러 세우고 물어 말하기를
 “춘매는 제 원명(原命)*으로 잡아 왔거니와 유씨는 아직 원명이 멀었으니 어찌 들어왔는고?”
 하거늘 유씨 이마를 조아려 여쭙되
 “대왕께서 사람을 생기게 하실 때에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이라. 그중 부부애(夫婦愛)도 중한지라 남편 춘매를 결단코 따라왔사오니 대왕께서는 첩도 이 곳에 있게 해주옵소서.”
 하니, 대왕이 유씨를 달래어 보내려 하자 유씨 또 여쭙되
 [B] “대왕의 법으로 세상에 내었다가 어찌 첩에게 이런 작별을 하게 하였으며 또한 남편 춘매에게 어찌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이리도 일찍 저버리게 하셨습니까? 나는 새와 달리는 짐승도 다 짝이 있사오니 하물며 젊은 인생 배필 없이 어이 살며 의탁할 곳 없는 몸을 누구에게 붙여 살라고 하십니까? 여필종부는 인간의 제일 정절이니 결단코 춘매를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그대 모친과 춘매 모친은 누구에게 부탁하고 왔느냐?”
 하기에 유씨 대답하여 말하기를
 “정이 이토록 절박하온데 첩의 청춘으로 부부 함께 있어야 봉양도 하옵고 영화도 볼 터인데 공방 독침 혼자 누워 무슨 봉양하며 무슨 참 영화 보오리까. 부부지정은 끊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진실로 그러하면 다른 배필을 정하여 줄 것이니 네 여연(餘緣)*을 다 살고 돌아오라.”
 하시니 유씨 아득하여 얼굴색을 변하며 말하기를
 “아무리 저승과 이승이 다르오나 대왕이 어찌 무류한 말씀으로 건곤재생의 여자로 더불어 희롱하십니까. 대왕께서 저러하고도 저승을 밝게 다스리는 대왕이라 하십니까?”
 하며, 천연히 꾸짖거늘 염라대왕이 유씨의 백설 같은 정절과 절의에 탄복하여 말하기를
 “그대의 마음을 탐지해 보고자 함이니 도리어 무색하도다.”
 유씨 대답하여 말하기를
 “염라께서 무색하다 하시니 도로 죄를 사하옵니다.”
 하고, 사죄하거늘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내 그대를 위하여 가군(家君)*과 함께 도로 내려보내니 세상에 나가 부귀영화를 누리 자손에게 전하고 한낱한시에 들어오라.”
 - 작자 미상, 「유씨전」 -

* 원명: 본디 타고난 목숨.
 * 여연: 남은 인생.
 * 가군: 남편.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 ② 꿈의 삽입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여 사건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3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염왕은 사신에게 명하여 춘매를 잡아오게 하였다.
- ② 춘매는 구천으로 자신을 따라오는 유씨를 만류했다.
- ③ 양옥은 유씨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 ④ 유씨는 춘매를 죽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양옥을 원망했다.
- ⑤ 춘매는 유씨로 인하여 저승으로 돌아갈 시한을 어기게 되었다.

36. [A]와 [B]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상대방의 행동을 질책하며 상대방에게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자신과 타인의 불행한 처지를 들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자신의 직책을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⑤ [A]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며, [B]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유씨전」은 여성에게 정절이 요구되던 시대를 살아가며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현하는 여인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비현실계에서 주어지는 시험과 현실계로 이어지는 보상은 시대가 바라던 여성으로서의 규범을 더욱 강조한다. 한편 현실 세계의 고난을 견뎌 내고, 죽음마저 불사하는 유씨의 열행에는 주체적인 여인상이 드러난다. 특히 초월적 존재 앞에서 의지를 굽히지 않는 당당한 모습, 다른 유교적 가치에 앞서 사랑을 택하는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 ① 염왕이 유씨와 춘매를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려보내려는 장면에서, 현실계로 이어지는 염왕의 보상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염왕이 유씨에게 춘매의 원명이 다하여 잡아 왔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춘매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염왕의 시험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유씨가 모친을 봉양하는 것보다 춘매와의 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다른 유교적 가치에 앞서 사랑을 택하는 적극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유씨가 불측한 일을 당하고도 먼 길을 거쳐서 춘매의 관 앞에 당도한 장면에서,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현실 세계의 고난을 견뎌 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유씨가 다른 배필을 정하여 준다는 염왕을 책망하는 장면에서, 초월적 존재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주체적인 여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38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방송국 기자였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직 통고를 듣고 생활에 불안감을 느낀다. 매사 능동적이고 자존심이 강했던 남편은 철저히 관계없는 사람처럼 두 번의 역사적인 밤에 현장에 있지 못했다.

그 두 번의 돌연한 ‘역사적인 밤’을 겪고 난 다음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어떤 모멸감을 느꼈다. 아니다. 말이 틀렸다. 자신의 생업에 대한 주저, 회의, 나아가서 모멸은 취재 현장에서 마다 맞닥뜨리곤 했던 터이라 ㉠ 이번에는 자신의 능력 자체 곧 기자로서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할 본분을 불신하게 되었다. 자신에게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동료들은 더 유들유들해진 것 같았고, 더 고분고분해진 듯했다. 다들 사태를 **원히 알고 있으면서도 눈만 껌벅거리고** 있었고, 공연히 전화질이나 해댔고, 어디선가 날아올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 그런 거지 뭐’라는 **유행가 가사만을 읊조리는** 냉소주의자들로 자족하기에 분주했다. 그것은 엄연한 직무 방기였다. 그래도 즐기 차게 화면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기계적인 일련의 직무 수행을 문득문득 되돌아보면 한편으로 우습기도 하고, ㉡ **다른 한편으로 “이 시덥잖은 것들아, 사기를 치려면 석 달 열흘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만한 사기를 치라”고 고함을 지르고 싶었다.**

그의 주위에는 점점 두터운 벽이, 묵언의 벽이 둘러싸이고 있었다. 심지어 그를 따르는 한 후배 기자까지도 “이선배, 오늘 저녁 부서 회식에 참석할 거요? 나까지 **안 찍히려면 적당한 핑계**를 하나 만들어 놔야지”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생업에는 패배감을, 직장 안에서의 위상에는 무력감을 느꼈다. 괴물의 화면을 만드는 **괴물의 집단**이었다.

그의 결론은 이랬다.

먹물들은 위기가 닥치면 다 비겁해진다. 그리고 처자식 걱정부터 먼저 한다. 도대체 ‘이놈의 동네에서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없어진 지 오래다. 사명감을 언제부터인가 원천적으로 봉쇄 내지는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런 직업관이 있어야 하는 건지, 있거나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따라서 다들 **기계고, 로봇일** 뿐이다. 과격하게 말하면 모든 먹물들은 태업할 권리조차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까막눈이다. 그것도 총 앞에서만 와들와들 떠는 과민성 체질의 까막눈이다. ㉢ **그러니 이미 먹물도 뭇도 아니다.**

그는 자신의 입지가 점점 비좁아지고 있음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었다. 그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렸다. 이상하게도 생활에의 불안감 따위는 까마득히 사라졌다.

나는 그의 실적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이웃 사람들, 예컨대 아래채 셋방 가족, 구멍가게 주인, 쌀가게 주인, 연탄 가게 주인 등에게는 말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었고, 일가친지, 그와 나의 친구들에게는 내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면 될 터였다. 그쪽에서 전화를 걸어 오더라도 그의 근황을 얼버무릴 심산이었다. 실없이 복직에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실직 소식에 꺼묻어 올 건성의 걱정을 들어 내기가 고역일 듯싶었고, 그 걱정은 결국 나를 초라하게 만들 것이었다. 도와주지도 않을 동정을 하라 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동정은 무조건 받기 싫었다.

(중략)

㉣ 나는, 우리가 이제 지나온 날을 더듬어 보며 앞으로 살날을 헤아려 보는 어떤 관조기에 들었다고 생각했다.

조금 쓸쓸해져서 나는 그에게로 다가갔고, 그가 봄기운이 무색해지는 말을 슬쩍 흘렸다.

“노인네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말이야.”

“㉠ 원, 중병 걸린 사람 같은 소릴 하고 있네, 싱싱한 사람이. 안 죽어요. 죽긴 누가 죽어요?”

“금붕어 밥 줘?”

그의 얼굴이 너무 진지해서 나는 툭 터져 나오는 웃음을 내 버려 두었다.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안 죽어요, 당신이 먹이 안 줘도 금붕어는 죽지 않아요.”

“돈키호테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아는데…… 그 친구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지. 외국 나가 있는 친구들은 소심증, 우울증 같은 것도 모를 거야. 생존경쟁과는 담을 쌓고 붕붕 떠다닐 테니까 말이야. 내가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나 봐**. 속이 허해졌고 **진기가 다 빠져 버렸어**.”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봄을 타는 걸 거예요. 최근에 삼촌은 한번 만났어요?”

“며칠 전에 회사로 찾아와서 점심 같이 했지. 결혼한다대. 심신 무력증 같은 병도 있나?”

그가 엉뚱한 말을 불쑥 내놓았다.

“서울에서는 집만 지니고 있으면 살지?”

“살다마다요. 집 없는 사람도 다 사는데.”

“일 년쯤 어디 낫선 데 가서 고생이나 실컷 했으면 좀 살 것 같애. 어젯밤에는 밤새 그 생각만 주물럭거렸어.”

“하세요. 누가 말려요. 탄광 같은 데 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한번 살다 오세요. 다들 너무 편하니 **나사**가 풀린 거예요. 해직 기자 중에는 옳은 직장을 못 구해 전전공공하는 사람도 있다면 서요? 그런 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잖아요.”

“**교과서 같은 소릴** 하고 있네. 그 친구들은 **악**이 살아 있을 테니 이런 무력감 같은 것도 모를 거야.”

“당신은 악이 없어졌어요.”

“언제는 내가 악이 있었나? 난 착한 사람이야. 악이 없다고 사람도 아닌가. 사람이 악만으로 어떻게 살아. 무쇠처럼 살았어. 정말 한심 천만이라는 생각이 들어…….”

“퀘변 늘어놓지 마시고 나사를 좀 조여 보세요. 당신은 지금 너무 편하고 걱정이 없어서 이런저런 잔걱정이 많은 거예요.”

“내가 편하다고? 웃기고 있네. 돈번다고, 남의 돈 벌어 준다고 쓸개까지 빼놓고 별지랄을 다 떠는데도? 나처럼 눈알 똑바로 박힌 놈이 다섯만 있어도 당장 내 사업 벌이겠네. 마누라를 전당포에 잡혀서라도. 어느 놈이 **무슨 욕을 하고** 지랄을 떨어도 **열심히 살아** 봐야지.”

[B] 그는 지쳐 있었다. 일에 치여 잠시 멀미를 내고 있을 뿐이었다. 책임감이 강하고, 남의 사정을 쉴 새 없이 결눈질하며, 속물들이 꾸러 가는 이 세상과 보조를 맞춰 가는 사람이 갑자기 만사에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 증세는 또 다른 일종의 무력감 내지는 허탈감이었고, 삶에의 회의였다. **각성의 계기**가 될지도 모르므로 그에게는 차라리 **축복**이었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해했기 때문에 갱년기라기보다는 관조기에 접어든 그의 뒤숭숭한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세상살이와 인간관계에 좀 더 분별력이 있어지리라고 믿었다.

- 김원우, 「아득한 나날」 -

38.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내적 독백을 통해 서술자의 판단을, [B]에서는 풍자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예상되는 행위의 나열을 통해 서술자의 심리를, [B]에서는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서술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서술자의 생각을, [B]에서는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서술 대상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A]에서는 반복되는 사건을 제시하여 서술자와 주변 인물 간의 관계를, [B]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서술 대상과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 ⑤ [A]에서는 과거와 현재 사건의 대비를 통해 서술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B]에서는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며 서술 대상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39.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취재 현장에서 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의 모멸감이 내재되어 있다.
- ② ㉡: 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그의 분노를 엿볼 수 있다.
- ③ ㉢: 부당한 무력 앞에서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의 떨시가 드러나 있다.
- ④ ㉣: 남편과 자신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는 시기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나의 쓸쓸함을 엿볼 수 있다.
- ⑤ ㉤: 갑작스럽고도 엉뚱하게 제시된 남편의 진지한 말에 대한 나의 의심이 내재되어 있다.

40. **나사**, **악**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편은 아내가 ‘나사’가 풀려서 이런저런 잔걱정이 많아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 ② ‘악’과 관련지어 편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③ 아내는 고생을 실컷 해보고 싶다는 남편을 현재 삶이 너무 편해 ‘나사’가 풀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④ 아내는 남편이 퀘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여기며 ‘악’이 없어졌으니 ‘나사’를 다시 조여 보라고 말하고 있다.
- ⑤ 직장을 못 구했지만 ‘악’이 살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친구들과 달리 남편은 자신의 삶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현실적 삶을 살아가는 중산층 인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삶에 매몰된 채, 속물적 사고로 인해 신의를 저버리거나 현실 세계의 문제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인물들의 부도덕함을 반성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또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대한 갈망과 함께 평범한 삶의 의미를 찾아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① ‘사태를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눈만 껌벅거리며 ‘유행가 가사만을 읊조리는’ 동료들의 모습에서 현실 세계의 문제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인물들의 부도덕함을 알 수 있겠군.
- ② ‘그를 따’랐지만 ‘안 찍히려’고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 그를 피하려는 후배 기자의 모습에서 삶에 매몰되어 속물적 사고로 인해 신의를 저버리는 중산층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기계’와 ‘로봇’처럼 살아가는 ‘괴물의 집단’이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잊었다고 여기는 그의 모습에서 현실적 삶을 반성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정신없이 바쁘게 살’며 ‘진기가 다 빠’졌다는 그의 상태를 ‘각성의 계기’이며 ‘축복’이라고 여기는 나의 모습에서 평범한 일상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알 수 있겠군.
- ⑤ 나의 말을 ‘교과서 같은 소’리라고 여기며 남들이 ‘무슨 욕을 하’더라도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그의 모습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부정하는 태도를 알 수 있겠군.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늙고 병들고 게으른 이 성품이
 세정(世情)도 모르고 인사(人事)에 우환*하여
 ㉠ 공명부귀(功名富貴)도 구하기에 재주 없어
 ㉡ 빈천기한(貧賤飢寒)을 일생(一生)에 겪어 있어
 낙천지명(樂天知命)*을 예 잠깐 들었더니
 산수(山水)에 벽*이 있어 우연(偶然)히 들어오니
 득상(得喪)도 모르거든 영욕(榮辱)을 어이 알며
 시비(是非)를 못 듣거나 출척(黜陟)*을 어이 알까
 (중략)

이끼 낀 바위에 기대어 앉아 보며
 그늘진 송근(松根)을 베고도 누워 보며
 한담(閑談)을 못다 그쳐 산일(山日)이 빗겨서니
 심승(尋僧)을 언제 할고 채약(採藥)이 저물거다
 그도 번거로워 떨치고 걸어 올라
 두 눈을 치켜뜨고 만 리를 돌아보니
 외로운 따오기는 오며 가며 다니거든
 망망속물(茫茫俗物)*은 안중(眼中)에 티끌이로다
 부귀공명 잊었거니 어조(魚鳥)나 날 대하라
 ㉢ 낚시터에 내려 앉아 백구(白鷗)를 벗을 삼고
 ㉣ 술동이를 기울여 취토록 혼자 먹고
 흥진(興盡)을 기약하여 석양(夕陽)을 보낸 후에
 강문(江門)에 달이 올라 수천(水天)이 일색인 제

만강풍류(滿江風流)를 한 배 위에 실어 오니
 표연천지(飄然天地)*에 걸린 것이 무엇이랴
 ㉤ 두어라 이렇성그러 종로(終老)*한들 어이하리
 - 조우인, 「매호별곡」 -

- *우환: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
- *낙천지명: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자기 처지에 만족함을 가리킴.
- *벽: 무엇을 치우치게 즐기는 굳어진 성질이나 버릇.
- *출척: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 ‘출’은 좌천시키거나 내쫓는 것이고, ‘척’은 승진시키거나 등용하는 것.
- *망망속물: 아득한 속세.
- *표연천지: 아득한 천지.
- *종로: 늙어 죽다.

(나)

㉥ 내가 기국원(杞菊園)을 가꾼 지 10여 년에 이름난 풀과 아름다운 나무들을 대략 갖추었다. 우거져 거칠고 어지럽게 섞여 있는 범상한 나무들은 일체 기국원에서 물리친 지가 오래 되었다. 그런데 바로 원(園)의 동쪽 평탄한 곳 아래에 한 나무가 살고 있었는데, 그 뿌리는 굵어 서리서리 얽히고, 그 가지는 무성하고 더부룩하니 뽀뽀한데, 베어내도 다시 무성해지고, 호미로 매어도 없어지지 않더니 몇 년 되지 않아 무성해졌다. 가서 살펴보니 대개 일컫는 참죽나무와 비슷했는데, ‘가죽나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또 느낀 바가 있어

㉦ 원(園)을 가꾸는 하인에게 자르지 말라고 하고, 흙을 북돋워 주고 그 가운데를 성기게 하고 곁으로 널려 퍼지게 했더니, 울창해지고 무성해졌으며 길게 그늘을 이루었다. 마침내 그 밑에 대를 쌓았는데, 거닐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어루만지며 즐기자니 어루만지기에도 부족하나, 시를 낮게 읊조렸다. 늘상 나는 거기에서 머무르며 그곳에 있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다.

㉧ 객이 있어 지나가다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이 기거하는 곳을 보았는데, 동산의 이름은 기국(杞菊)으로 짓고, 집은 ‘오동(梧)’으로 이름 짓고, 마을은 ‘소나무(松)’로 이름 지었다. 대나무가 가리고 있으며 매화가 있어 향기가 나고, 또 그다음으로 작은 길을 복숭아와 오얏나무로 채웠으니, 온갖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저 가죽나무라는 것은 악목(惡木)이다. 처음에는 싫어하는 사람들의 도끼에 베어짐도 부족한데, 도리어 사랑하고 길러 영화와 꾸밈을 받게 하고, 더불어 못 향기로운 나무들과 나란히 있게 하였다. 이것은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외람되어 군자들이 모인 대열에 나란히 한 것과 같으니, 이것은 군자가 부끄럽게 여기는 바가 됨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큰 것 아닌가. 주부자(朱夫子)*가 말하기를, ‘한 그릇 속에 향내와 악취가 섞이면 향기의 깨끗함을 구하기는 어렵다.’고 했으니, ㉡ 그대는 어찌 더러움과 고상함을 섞음에서 취하고자 하는가?”

라고 하니 ㉢ 나 또한 응답하여 말하기를,
 “그렇다! 그대의 말이 참으로 옳다. ... (중략)... 또 대저 가죽나무의 삶은 또한 우연이 아닌 것은 처음에는 나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망령되어 당세에서 쓰임에 뜻이 있어, ㉣ 문득 얇은 재주와 기능(技能)으로 벼슬아치의 뜨락에서 구하고자 시도하기를 여러 해였다. 그러나 퇴락한 물건은 팔리지 않고, 어긋나 맞지 않으니, 소용이 없음을 확실하게 알아 게으름을 피우며 쉬고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가죽나무가 홀연 내 정원(園)에서 자라나니, 이것이 곧 내가 가죽나무에서 구하는 것이 아닌가. 가죽나무는 거의 나의 삶을 위한 것

이고, 이것에 또 내가 느낀 바가 깊었다. 또한 물건은 재목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재목이 되니 대들보라는 것은 그것을 벤 것이고, 의(椅)나무와 오동나무는 재목이 되니 거문고라는 것은 그것에서 취한 것이다. 오직 가죽나무만은 재목이 못 됨으로 쓰임이 없고, 쓰임이 없으므로 자재(自在)하여 비와 이슬을 배불리 먹고 바람과 서리를 실컷 먹으며 이에 하늘이 준 수명을 다한다. 나 역시 다행히 세상에 쓰임이 없으므로 내 분수에 편안히 내 천성을 다한다. 벼슬도 나를 얽어맬 수 없고 형벌도 나에게 더해질 수 없다. ㉢ 한가롭고 여유 있게 놀다가 늙어서 또한 숲과 풀 사이에 죽을 것이니, 이것이 쓰여짐 없는 것의 귀한 바이고 물건과 내가 같이 즐기는 것이다. 그대는 이것을 원망하니 또한 다르지 않는가.”

라고 했더니, 객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가버렸다.
- 어유봉, 「양저설(養樗說)」 -

* 주부자: 남송의 대유학자 주희(朱熹)를 높여 부른 말.

4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에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다.
 - ② ㉡에는 가난한 삶의 모습이, ㉢에는 벼슬을 구하고자 했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③ ㉡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가, ㉢에는 자연물을 가꾸며 살아가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④ ㉡에는 자연에서 즐기는 흥취가, ㉢에는 자연물을 아끼는 마음이 나타난다.
 - ⑤ ㉡에는 현재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심정이, ㉢에는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나타난다.

43.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매호별곡」은 자연을 벗어나 한가로이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사대부 가사이다. 화자는 자신이 이익이나 공명과 같은 세상사에 밝지 않다고 생각하며 분수를 지키는 삶을 살고자 자연에 은거하고 있다. 속세를 떠나 마음껏 자연을 누리며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 자연 속에서 바라본 속세에 대한 화자의 인식 등이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영욕을 어이 알며'와 '출적을 어이 알까'와 같은 반복과 변주를 통해 드러냈군.
- ② 속세를 떠나 한가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어 앉아 보며'와 '베고도 누워 보며'와 같은 행동 묘사를 통해 드러냈군.
- ③ 속세가 자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인식을, '망망속물'을 '안중에 티끌'에 비유하여 드러냈군.
- ④ 자연 속에서 운치 있게 즐기는 상황을, '만강풍류'를 '실어 오니'와 같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통해 드러냈군.
- ⑤ 거침없이 자연을 누리는 상황을, '걸린 것이 무엇이랴'라는 설의적 표현으로 드러냈군.

44.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의 의견에 끝내 동의하지 않고 항의한다.
 - ② ㉠은 ㉢에게 역사적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강조한다.
 - ③ ㉢은 ㉠에게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한다.
 - ④ ㉢은 ㉠의 주장에 명분이 없음을 지적하고 불쾌함을 나타낸다.
 - ⑤ ㉢은 ㉠에게 대상을 보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고 상황의 급박함을 드러낸다.

45. (가)의 [산수]와 (나)의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수'는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실현된 공간이고, '정원'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된 공간이다.
 - ② '산수'는 궁핍한 생활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공간이고, '정원'은 궁핍한 생활에 대해 한탄하는 공간이다.
 - ③ '산수'는 현실에서의 고뇌가 이어지는 괴로운 공간이고, '정원'은 현실과 이상의 조화가 실현된 평화로운 공간이다.
 - ④ '산수'는 자연 속에서도 현실로의 복귀를 염원하는 공간이고, '정원'은 자연 속에서도 현실에 대한 미련을 표출하는 공간이다.
 - ⑤ '산수'는 세속적 삶에서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드러난 공간이고, '정원'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드러난 공간이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